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44호
3월 16일
2024년
토요일

牧羊新聞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말씀충만 성령충만, 간절한 기도... ‘3.1절 나라를 위한 기도성회’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은혜와진리교회 각 성전에서 동시에 드러져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주최 ‘3.1절 나라를 위한 기도성회’가 지난 3월 1일(금)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각 성전 동시예배로 드러졌다.

3.1운동 105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날 성회에서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한마음 한 뜻으로 선열들의 희생과 기도로 지켜온 우리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앙망하며 간절한 기도했다.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 권순달 목사의 사회로 직전회장 박종호 목사의 대표기도, 상임회장 박병일 목사의 성경봉독, 안양성전 뎬월성가대의 찬양,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서로 예배를 드렸다.

조용목 목사는 갈 5: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자유’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먼저, “3.1운동을 기념하면서 우리 마음 깊이 새기는 교훈은 ‘자유’의 고귀함이다. 인류 역사는 자유유린과 자유쟁취 투쟁의 역사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와 인권을 보전하는 일에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람은 육신과 정신과 영을 가진 존재이므로 육신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가 있어야 하고 이 가운데 가장 중대한 자유는 영



적인 자유이다. 사람은 영혼이 자유를 얻지 못하면 인생을 허송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복음은 자유에 대한 소식’이라고 강조한 조용목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자유의 내용과 성격에 대하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향유하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었다.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은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사망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즐거움과 또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즐거움을 향유하십시오. 그리고 율법의 요구보다 더 숭고하게 행하는 즐거움까지 향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조용목 목사의 설교와 애국가 합창에 이어 자문위원 김찬곤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대표회장 김신호 목사의 인도로 2부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합심기도 순서에서는 이대희 효산의료재단(샘병원·지샘병원) 이사장 등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평화와 북한의 변화를 위해’, ‘대통령과 4.10총선을 위해’ 제목기도를 하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총회장 오병열 목사의 권면과 최태호 안양시장과 최병일 안양시의회의장의 축사와 삼일절 노래 합창 순서에 이어 자문위원 전승환 목사의 폐회기도로 성회를 마쳤다.



교경중앙협 정총, 경찰가족복음화 국민안전 기도

조용목 목사 북도발에도 한미동맹·군과 경찰 헌신으로 안보치안 유지 감사

제51차 교회와경찰중앙협의회 정기총회 및 ‘나라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도회’가 지난 2월 29일(목) 오전 서울 AW컨벤션센터(하림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어 경제적 침체와 총선을 앞두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을 이끌어갈 51대 대표회장 오병열 목사(성산교회)가 선출되었다.

정기총회는 대표회장 이기용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양정섭 목사의 기도, 서기 김바울 목사의 회원점명 후 감사·결산·사업 보고가 이뤄졌으며, 임원선거와 신규임원 인사,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안건토의, 회의록 채택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어 열린 ‘나라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도회’는 사무총장 박노아 목사 사회로 내빈소개, 주제별 기도 1)대통령과 나라의 평화를 위해 양재철 목사 2)경찰청장과 국민이 안전을 위해 양정섭 목사 3)경찰청장과 교경발전을 위해 박병준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공동회장 신현수 목사의 성경봉독, 아름다운찬양대의 특송, (제)참수리사랑 이사장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의 설교 순서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전 3:1 말씀을 본문으로 ‘기회(機會)’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통치자가 자유민주주의 체



제를 견지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일관된 통치이념과 정치행보로서 국정을 수행하면 국민은 안심한다. 그리고 주어지는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의미 있게 유용하게 가지 있게 적절하게 사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통치 이념과 국정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국가안보, 자유민주주의, 통일, 시장경제, 법치, 한미일 동맹, 그리고 대북 관계와 대중 관계 등에 대하여 거듭 천명했다.”고 전하고 “우리나라는 휴전선을 두고 남북한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고 6.25 전쟁 이후에도 호전적인 공산당 독재의 북한은 셀 수 없이 많은 도발과 협박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치안이 유지되는 것은 한미동맹과 함께 국군과 경찰의 헌신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민이 평안히 생업에 종사하고 각종 사회활동과 여행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경찰이 제공하고 있으며 교경중앙협의회와 전국 각 지방의 경목 목사님들은 경찰과 그의 가족이 평안하고 또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기 위하여 충심으로 기도하

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며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고 경찰과 그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를 당부했다.

설교 후 치안총수인 윤희근 경찰청장의 감사장 전달과 인사말이 이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협의회에서 경찰 임무를 지원해 주시고, 특히 많은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찰 유가족 분들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금년은 경찰 창설 84주년을 맞는 해로, 안전과 질서 확보를 최대의 목표로 삼고 기초치안 확립에 최선을 다하며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51대 대표회장으로 선임된 오병열 목사는 “13만 경찰조직과 한국교회를 아우르는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과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주어진 임기 동안 경찰가족의 영혼구원과 교경중앙협의회 발전에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9대 대표회장 배진기 목사의 축사, 박노아 목사의 경과보고, 33대 대표회장 이재완 목사의 축도로 ‘나라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도회’가 마무리 되었다.



‘예수님이 묻는 세 가지 질문’



조용목 목사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나...”(요 21:15)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첫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관련하여 사람들을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이런 질문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부류는, 이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 반응을 하거나 그릇된 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부류는, 성경에 계시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와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간단하지만 완전한 신앙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을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영원하고 참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지식과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고백 위에 세운 교회를 음բ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신앙고백을 하는 신자들 사탄의 세력이 이기지 못합니다.

둘째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두 명의 소경이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들이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아오

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간절한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셋째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이 되어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중대한 임무를 위임한다는 말씀을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그 증거가 따릅니다. 첫째, 자신의 의지가 연약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둘째, 주님의 뜻과 요구를 묵묵히 수용하고 따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뜻을 순순히 수용하였습니다. 셋째, 주님만 바라보고 따릅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하고 묻자 예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한들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불필요한 비교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성공과 성취감을 얻으려 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성실한 삶에서 오는 성공과 성취감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힘쓰는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자유대한민국 수호대회 및 3.1 구국기도회’

한국교회보수연합, “순국선열 희생 기억해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대한민국 수호대회 및 3.1절 구국기도회가 3월 1일 서울시청 앞 특별무대에서 개최됐다. 5천여 명의 목회자와 시민·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교회보수연합(KCCA 대표회장 박만수 목사)이 주최하고 애국 보수단체가 참여했다.

먼저 수호대회는 1부 문화행사와 2부 강연, 3부 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1부 문화행사는 난타 ‘주님의 군대’를 시작으로 부채춤 ‘거룩한 성전’, 장구춤 등 다양한 순서로 펼쳐졌다.

문화행사에 이어 진행된 기도회는 신상철 목사(KCCA 상임회장)의 사회로, 오계환 장로가 특별기도(대한민국정로연합회 사무총장)하고, 한국교회보수연합 대표회장 박만수 목사가 설교했다.

박만수 목사는 설교를 통해 “3·1독립운동은 기독교가 중심이 된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오늘날까지 이 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다”며 “오늘 서울시청 앞에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국선열의 고귀한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목사는 “지금의 한국 사회는 순

국선열들의 독립 정신이 훼손되고 있으며,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가 혼란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오로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간구하고 국가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순모야 기도하자”고 이꼰었다.

2부 강연은 황교안 前 국무총리의 인사말에 이어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3.1운동 나라 사랑), 권영해 前 국방부 장관(국가안보), 민경욱 전 국회의원, 김병태 ROTC 동지회 회장, 이석복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 연합회장 등 인사들이 나서 특강을 이었다.

무엇보다 이날 참가자들은 강연 후에 행사장인 서울 시청을 출발, 용산 대통령실까지 이어진 행진을 펼쳤다. 특히 행진에서는 거리의 시민들에게 자유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함을 일깨우는 전단을 나눠주며 거리 캠페인도 진행했다.



3.1절 국민대통합 구국기도회 개최

한기총, 애국애족의 정신 기억할 것 다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2월 28일(수) 한국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105주년 3.1절 기념 국민대통합 구국기도회를 개최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분께 무궁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한편, 3.1운동의 근간인 애국애족 정신을 기억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구국기도회는 국가안보, 정치안정, 경제회복, 사회통합, 통일한국 등 다섯가지 키워드로 1부 국민의례, 2부 기념예배, 3부 국민대통합 구국기도회로 진행됐다.

구국기도회에서는 김용도 목사(명예회장)와 이승렬 목사(명예회장), 심하보 목사(공동회장)가 각각 희망메시지, 통합메시지, 평화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특별기도 순서는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위해 △국민대통합과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한국교회 연합과 대통합을 위해 △한기총의 부흥을 위해 △전정 범종과 세계평화



를 위해 △세계 복음화와 선교사를 위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소외된 이웃의 회복을 위해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불허를 위해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 △저출생 극복과 다음세대를 위해 △마약 예방과 중독, 퇴치 적절을 위해 12가지 기도제목을 놓고 한기총 공동회장과 공동부회장들이 나서 특별기도를 이어갔다.

대회를 주관한 대표회장 정서영牧사는 “올해 3.1절을 맞아 한기총은 국민대통합 구

국기도회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한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국가안보, 정치안정, 경제회복, 사회통합, 통일 한국을 이루는 능력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국기도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하나 될 줄 믿는다”며 “세계 곳곳의 전쟁이 멈춰지고 모두가 평화를 노래하는 놀라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교연, 3.1운동 105주년 기념예배

“희생과 헌신으로 한국교회 다시 일으키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지난 3월 1일(금) 강원도 원주 벨레교회(조성훈 목사 시무)에서 3.1운동 105주년기념예배 및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믿음의 선열들이 보여준 자기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나라와 국민 가슴에 희망과 신뢰를 심을 것을 다짐했다.

상임회장 조성훈 목사의 인도로 열린 1부 기념예배는 상임회장 이영한 장로의 대표기도, 배기순 목사(공동회장)의 성경봉독, 브라가에슬선교단의 특송에 이어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가 에 4:16-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에스더의 결단과 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송 대표회장은 설교에서 “우리나라는 1910년 이후 36년간 자유와 인권, 국권을 박탈당하고 짐승처럼 암흑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때 유일하게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고 들고 일어난 이들이 기독교인”이라며 “모



두가 좌절하고 굴복당해 있을 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끈 아나라 달고 외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서 싸운 게 바로 3.1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영수 목사(부회장)가 봉헌기도를 한 후 이병순 목사(공동회장)가 ‘자유민주주의와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최철호 목사(배수위원장)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주민

자치기본법 철폐를 위해’, 광명선 목사(감사)가 ‘제22대 총선에 바른 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최길학 목사(공동회장)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연합을 위해 ‘각각 특별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가 광고를 전한 후 상임회장 김노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지도자협, 3.1절 기념 나라위한 기도회

3.1절 운동은 민족정신 일깨운 독립운동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김진호 목사)이하 지도자협)는 지난 3월 4일(월)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3.1절 105돌 기념 및 나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개최하고 민족정신을 일깨운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도회 1부 예배는 상임회장 최병두 목사 사회로 공동회장 원종문 목사의 기도, 공동회장 박석환 장로의 성경봉독, 한국감리

교목사합창단의 특별찬양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회장 노희석 목사는 에 4:13-17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과 나라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3.1절 운동은 기독교 정신이며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독립운동이다. 작금 의사들의 행동은 개인주의이며 이는 망국적인 행동이다. 우리는 민족정신을 일깨운 선열들의 애국독립운동을 본받아 예수 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강

조했다. 예배는 계속해 CBS실버합창단의 특별찬양, 회계 송성의 장로의 헌금기도 후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공동회장 배태린 목사가, ‘한국교회와 부흥을 위하여’ 고문 최병호 목사가, ‘한기지협 발전을 위하여’ 공동회장 백승익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예배는 사무총장 한동철 목사의 광고, 참석자 모두가 애국가를 제창한 후 전 대표회장 김동권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특별 통성기도 시간은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대표회장 김진호 목사의 인도로 참석자 모두가 특별 통성기도 시간을 갖고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는 일꾼을 뽑아 달라고 간곡히 기도했다. 오는 2025년 7월 창립 50주년을 맞는 한기지협은 현재 50여 개가 넘는 교단 및 단체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및 한국교회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김운성 목사 ‘연세조찬기도회장 취임’

이취임식, 학교위해 기도… 운동섭 신임 총장도 참석

제193회 연세조찬기도회가 연세체육회 주관으로 지난 3월 7일(목) 오전 서울 연세대학교 루스채플에서 개최됐다. 전용관 교수(89 체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의 인도로 진행된 기도회에선 이성희 장로(75 경영, 검도OB)의 대표기도, 이관식 회장(66 경영)의 성경봉독과 여아름합창단(94 학번 동기)의 특별찬양 후 서중석 목사(재단 이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서 목사는 ‘심는 기쁨’(요 4:37-38)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 기도회이자 운동섭 신임 총장님과 새로 임명된 교무위원들과 함께 예배로 한 학기를 시작하는 뜻 깊은 기도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 목사는 “우리 연세조찬기도회도 마찬가지로 25년 전 이승영 초대 회장님의 수고와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이 기도회는 없었

을 것이다. 140여 년 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지 않았다면 한국교회도 한국의 크리스찬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연세조찬기도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새롭게 회장으로 추대된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담임)가 제2대 회장인 이효종 장로에게 감사패 전달을 했다. 이어 취임사를 전한 김 목사는 “오늘 여기에 선 제 심정은 마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많은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학교를 다녔으며, 오늘은 조찬기도회 회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신입생의 마음으로 받게 되었다. 조찬기도회에 모일 때마다 한분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오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을 오시도록 하여 이 자리가 좀 많이 채워지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우리 학교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서기총 “반기독교 사상과 세력에 맞서겠다”

대표 심하보 목사, 교파초월 결집과 연대 이룰 것 당부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심하보 목사, 서기총)는 2월 27일(화) 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이예경 목사)에서 제20-1차 실무회의를 갖고, 기독교 시민단체들과 함께 반기독교 사상과 세력에 맞서 한국교회를 수호하는 일에 나서기로 했다.

대표회장 심하보 목사는 “피와 자유로 지켜온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우고, 한국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깨어야 한다”면서 “남은 시간은 복음과 진리를 지켜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기독교 세력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교파를 초월해서 뜻있는 분들이 모여 힘을 결집해야 하고, 기독교 시민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서기총이 이 일들을 감당하고자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더 많은 한국교회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키고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는 누구 한 사람의 사명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들불처럼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앞서 1부 예배는 사무총장 노근재 목사의 사회로 실무회장 김아브라함 목사가 기도하고, 중경대표회장 원성웅 감독이 말씀을 전했다. 이후 공동회장 김영일 목사가 축

도하고 예배를 마쳤다. 제2부 회의 시간에는 먼저 투병 중에 있는 김병준 목사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이어 다양한 정책과 현안들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서기총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다짐했다. 이어진 3부에서는 오찬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원성웅 감독은 설교에서 “서기총의 사명은 막중한 사명이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불의와 불법이 판치는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참 예언자의 길”이라면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영적 파수꾼으로서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깃발을 들고 행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는다. 서울시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대의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제해야 할 이단 명단과 목록 공개

학원복음화협, 2024 캠퍼스 이단경계주의보 발령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금 대학 캠퍼스가 활기를 띠고 있는 시점에 이단 단체들이 다시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단 경계주의보가 발령됐다.

학원복음화협의회(이하 학복협)는 2월 21일(수) ‘2024년 새학기 이단경계와 건전한 캠퍼스 선교단체 추천’ 공문을 통해 이단의 활동 방식을 잘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캠퍼스 이단은 새내기들에게 설문조사와 봉사활동, 문화행사 등으로 접근하여 가입을 유도한다. 간직한 기독교 동아리에 침투하거나 새내기들의 클럽에 교묘하게 접근하기도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학복협은 주목해야 할 이단으로 IYF와 신전지, 하나님의교회, JMS, 통일교 등을 지목했다. (사)국제청소년연합 IYF(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는 ‘굿뉴스코’, ‘기쁜소식선교회’, ‘기쁜소식강남교회’, ‘대한예수교침례회’ 등의 이름을 주로 사용한다. IYF는 구원파라 불리는 집단 중 박옥수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다. 최 사람과 거듭남, 구원의 비밀을 자신들의 교회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일단 최 사람을 믿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영

어 말하기 대회, 명사 초청 강연회, 해외자원 봉사, 귀국발표회, 글로벌캠프, 국제문화박람회 뿐만 아니라 뮤지컬, 음악회,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적 접근으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매키음, 맘소리, 맘오니 등 육아 커뮤니티를 활용해 포교에 나서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 기간에 너무나 잘 알려진 신전지는 선교단체와 일반교회에 위장 잠입하여 활동하면서 신자들을 미혹한다. 잘 알려진 교회나 선교단체의 이름을 도용하여 성경공부 모임을 운영하기도 하고, 설문조사와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등으로 미혹한다.

국제마약경찰대, 서울캠퍼스 설립

마약퇴치를 위한 상담사·교수 등 전문가 배출

전 세계가 마약으로 인해 멸망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마약으로 인해 병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약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계 최초로 설립한 교육법인 국제마약경찰대학교가 서울캠퍼스를 설립하고 지난 3월 2일(토) 오전 11시 서울 중로구 대학교 소재 동 캠퍼스 강당에서 설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학장 류현상 박사의 사회로 특임교수 문연호 박사의 대표기도, 교무처장 오세영 박사의 성경봉독, 복음가수 김옥희 전도사의 특송 순으로 진행됐다. 명예총장 피종진 박사는 출 7:4 말씀을



본문으로 한 ‘나의 군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날 세계의 큰 무서운 살상의 무기는 마약이다. 유엔을 비롯한 세계가 마약퇴치를 위한 여러 가지 기구를 만

들고 있지만 마약은 청소년을 비롯한 곳곳에 들쭉날쭉 번지고 있다. 오늘 국제마약경찰대학교 서울캠퍼스 개원에 모인 여러분들은 마약퇴치를 위한 군대의 군인들이다.

카페테리아 수익금 1,634만원 후원

초록우산 해긴과 저소득 가정 아동 학용품 지원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글로벌 게임 기업 해긴과 함께 신학기를 앞둔 저소득 가정 아동의 학업 준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2월 29일(목) 밝혔다. 초록우산과 해긴은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 중인 서울 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 35명에게 학용품, 교복, 책가방 등 아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약 1,634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

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긴은 모바일 게임 ‘홈런 클래식’, ‘플레이 투게더’ 등을 발매한 게임 회사로, 임직원 복지와 사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사내에 조성한 카페테리아의 지난해 수익금을 초록우산에 전달했다. 해긴 이원근 경영기획 이사는 “아이들의 행복한 신학기를 위해 이번 후원을 하게 됐

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의 의미와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초록우산 신정원 사회공헌협력본부장은 “아이들이 걱정 없이 원하는 공부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모든 아이들이 교육 격차 없는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언제나 어린이 곁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생명의 말씀 ■



엄기설 목사

• 전임 교단 부총회장
• 은혜와찬양교회 담임

은혜에 대해서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자기가 너무 미웠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고 결심을 했지만 또 다시 넘어진 다음에 심각한 좌절을 겪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에게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은 실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부분이 부족하네 하고 바꾸어 가자이 좀 더 노력해야지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솟으로 태어났습니다. 뉘는다고 해서 하얀 비누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타락 그제 우리 육입니다. 육에는 죽음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요 15:1-8)

타락했고, 완전히 죽었고 우리의 육은 여전히 육이고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성질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나는 솟이 아닌 비누가 될 수 있다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죄는 살인, 강간, 도둑질 등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를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인데 이 기초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만들어 내고 스스로 채찍질하며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지을게요.” 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는 주를 놓치지 않을게요.”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듯이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며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인줄로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내가 길, 진리, 생명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관참은 모습이라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이것을 지켜 그러면 사랑해 줄게 그러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걸으신다면 그것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기만을 원하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

가지의 역할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 연결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열매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다면 그때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겸손하고 아주 용기 있고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본래 추하고 악하고 망가지고 파괴되고 죽은 것이 우리의 본 모습 즉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저에게서 좋은 부분을 볼 때가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는 저의 모든 아름다운 부분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빌려 쓴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니고 빌려서 받은 것입니다. 또 제게서 부족함이나 잘못된 부분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타난다면 그 모습이 바로 저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육은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13)고 했습니다. 주를 부르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루 24시간 주를 붙잡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지금 모든 시작이 실패하는 것은 기도 할 때 외에는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옆에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단순히 그저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가는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빠졌을까요? 파도와 바람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기술되어 있으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

드로가 파도와 바람이 아닌 오리나 거북이나 물에 떠내려가는 돼지나 그 어떤 것을 보았다 해도 그는 빠졌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다른 어떤 것을 보았다는데 있지 않고 그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합니다. 인간이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항상 주를 부르세요. 꿈에서도 부르세요. 저는 암투병 생활 후 밤낮으로 주를 부르며 잠이 들었어요. 주님, 주님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정복해 주세요.

그렇게 주를 붙들지 않으면 죄를 지으니까요.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좋은 열매를 못 맺으니까요. 그저 밤새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고 주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죄짓고 넘어져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원래 이렇게 뭐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당연한 거지. 이제 원래 내 모습이지 그렇게 툭툭 털고 일어나서 격정하지 말고 다시 주님을 향해 가십시오. 주를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제게 어느 정도 열매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애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한 가지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성품에 문제가 있고 대인관계가 자유롭지 않은 이들 오직 예수를 붙들므로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놓치지 마세요. 돈을 잃어도 목숨을 잃어도 예수를 놓치지 마세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동정

한기총 최재영 등 고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가 김건희 영부인을 상대로 ‘합정 몰카’를 행한 최재영목사와 해당 장면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백호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기총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는 지난 3월 7일 (목)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최 목사와 백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발했다.

거룩한방파제 국토순례네번째 여정



전방위적인 성오염(성혁명)으로부터 가정과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방파제(대화상 오정호 목사) 국토순례 네번째 여정이 뜻을 올렸다. 국토순례단(단장 홍호수 목사는) 지난 3월 4일(월) 전남 진도군청 철마광장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517km 대장정에 들어갔다.

손양원 목사 석좌교수 약정식



서울 관악구 큰은혜교회(담임 이규호 목사·사진)가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김운용 박사, 이하 장신대)와 ‘손교자 손양원 목사 석좌교수’ 약정식을 지난 2월 28일(수) 장신대 한경직기념예배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약정식에서 큰은혜교회는 장신대 김도훈 교수(조직신학)를 ‘손교자 손양원 목사 석좌교수’로 선정했다.

조성돈 교수, 자살률도 줄일 수 있다



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지난 3월 8일(금) 총회회관에서 예장합동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위원장 강문구 목사) 주최로 ‘낙태 및 자살 예방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조성돈(사진)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자살률도 생명 존중으로의 인식 변화와 생명 존중 문화 확산,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줄일 수 있다”며 교회가 감당해야한다고 밝혔다.

논평

한국교회연론회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제22대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불과 한 달 후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치르게 된다.

그동안 거대 정당의 끝없는 횡포를 경험해 온 국민들로서는 국민의 바른 선택만이 정치와 국가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냉정한 결정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 대표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도 국회에 입성할 길이 열렸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야권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국회에서 만들어졌다. 민주당이 주도하면서, 야권이 연합된 형태의 ‘더불어민주연합’인 것이다.

이 위성 정당에는 더불어민주당, 새진

보연합, 진보당, 연합정치시민회의 등이 참여한다. 그래서 비례대표 후보 30명을 배치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20명, 새진보연합이 3명, 진보당이 3명, 그리고 시민사회가 4명을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진보당은 어떤 성격을 가진 곳인가? 이 당의 전신인 통합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되었다.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한 것이 인정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결정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현재 진보당에 남아 있다. 진보당의 강령도 한?미동맹 파기와 비동맹 중립 통일국가 건설, 재벌 해체 등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일반적,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와

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통진당의 목표가 결국 진보당을 통하여 재현될 것인가?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과 군소 좌파 정당들이 연합하여 만든 곳이다. 기본소득당은 현재 국회의원 1명을 보유하고 있고,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으로 당선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김의겸, 최광호 등이 있다. 이들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21대 국회에서 4년간 끊임없이 보여왔던 것인데, 이를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좌파, 반미, 친북 성향 인사 230명이 만든 곳인데, 이들은 한미FTA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사드 배치 반대 등의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국회에 입성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 10명이면 어떤 법안이라도 발의할 수 있고, 20명이면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이들이 당선되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국가의 수많은 정보들을 빼서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합법적으로 국가를 허무는 일을 국민들은 하릴없이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중북·좌파들이 노리는 것은 국민들이 피처럼 낸 세금을 축내는 것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재직 때, 수많은 좌파 단체들이 생겨났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333곳에 지원한 금액이 7,111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으로 이런 세력들을 돕고 키운 것이다.

정상은 박사 성결대학교

명예총장으로 추대



정상은 박사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은 지난 2월 23일(금)에 개최된 제8회 성결신학원 이사회에서 정상은 박사를 성결대학교 명예총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정상은 박사는 1987년 신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2024년 2월말 37년 재직기간을 끝으로 정년퇴임했다. 그동안 재직 기간 중 성결대 5,6대 총장을 역임했다.

『한국성경교회 백년사』, 『한국성경교회와 사중복음』 등 45권(공저 포함)의 저서를 펴내었고, 재직 기간 전국기독교대학원장협의회 회장,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원협의회 회장,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회장, 라이즈업 코리아(사단법인)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경기남서지방회 월례회

경기남서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3월 11일(월) 순복음새생명교회(담임 이광우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광우 목사의 찬양 인도와 사회로 시작되어 사회자의 성경봉독, 회개 표현자 목사(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의 대표기도, 임경영 목사(순복음하늘빛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눅 7:11-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나인성 과부에게 남편은 의지의 대상이다. 어떤 이에게는 돈이 남편이고, 아파트나 땅이 남편이다. 나인성의 과부에게 죽은 아들은 자신의 열매이자 의지하고 사랑하는 전부일 수 있으나 남편에 이어 아들이 죽어 과부가 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주셨다. 참된 생명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외에 내가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을 버려야 한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죽어야 주님

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 교단과 지방회, 교회와 교역자를 위해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이미경 목사(순복음동방이빛교회)의 헌금기도와 김기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회장 김기인 목사의 인도로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안건토의 후 순복음새생명교회에서 정식으로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한 후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부활의 기쁨이
고통 속의 이웃에게도
스며들기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거룩한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마지막 날,
생사의 길목에 서있는 환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주세요.
생명나눔,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밝힐
가장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생명나눔예배 참여 안내

본부 소속 목사가 설교 또는 설명회를 통해 장기기증 서약식을 진행합니다.
등록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등록증을 나눠드리며, 교회에는 기념패를 전달합니다.

문의 : 교회팀 02-363-2172 | www.donor.or.kr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생명의 말씀, 성경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신현욱 목사 초청 특강...구원은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인천지방회 확핀순복음교회 특강 개최

인천지방회 확핀순복음교회(담임 정진균 목사, 부목사 손정희 목사)는 지난 3월 10일(주일) 오후 2시 동교회에서 신현욱 목사(구리이단상당소 소장)를 강사로 이단 사이버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들의 그릇된 교리를 만들고 포교활동에 적용하는 과정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실제상황에서 적용하고 물리치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강의했다.

새학기를 맞아 학원가에 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단 사이버의 맹렬한 포교가



강사 신현욱 목사(좌)와 확핀교회 정진균 목사(우)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학원가뿐만 아니라 조직을 동원하여 전국 어디에서도 이들의 포교 활동을 접할 수 있어 이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천지, 통일교,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안상홍증인회) 등은 지속적으로 신도들을 억지로 엮어 만든 그릇된 교리로 세뇌시키고 있다. 이들은 무언가 연결고리가 포착되면 포교 대상자를 회유와 협박으로 가족들과 신도 그리고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돌려내라고 시위를 하자 자식을 시위 현장에 데리고 가서 폭행하도록 유도하는 등 건강한 사회생활을 가로 막고 있기도 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는 아직도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이단들이 바깥이 도처에서 포교를 한다.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교육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여 성도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신현욱 목사는 이날 강의에서 “신천지의 가장 큰 미끼는 성경의 비유물이다. 성경의 비유를 알려준다며 성경을 아전인수격이고

터무니없는 비유물을 하는데도 훌쩍 넘어가고 한다. 그러나 성경과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속지 않는다. 먼저 모든 성경의 정답은 ‘예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가리키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를 가리킨다. 따라서 말씀의 뜻과 모든 비유물의 정답도 역시 ‘예수’이다. 이것만 알면 신천지의 비유물이 사기성에 결코 속지 않는다.”고 했다.

신 목사는 이어 “신천지는 난해한 미스터리를 풀듯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미로를 넣어두지 않으셨다. 성경의 뜻과 비유를 풀 줄 알아야 구원하겠다고 하지 않으셨다. 비록 무식한 자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진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셨다. 구원은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방법 외에는 없다. 따라서 모든 성경은 진리인 예수가 계시되었다. 즉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 속에는 예수가 들어있으며 모든 말씀의 뜻도 예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경 비유물의 모든 정답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막4:11-12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즉 악인이 구원 받지 못하게 비유로 해놓



으셨다는 것이다. 즉 비유는 구원과 연결된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비유는 예수가 정답이며 예수로 풀어야 한다. 성경이 왜 비유로 되었는지는 마 13장 1절에서 53절까지 읽어 보면 알 수 있다. 비유의 정답이 예수라는 것도 마 13장 16절에 나와 있다. 이것을 알면 신천지의 아전인수격이고 터무니없는 허구적인 비유물에 속지 않는다.”며 분별력을 키워야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지방회 확핀순복음교회(담임 정진균 목사, 부목사 손정희 목사)는 ‘거룩한 대한민국

교이단상당소 협회장을 강사로 세미나(목양신문 1175호 3편)를 갖고 11월에는 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안),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등 기존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온갖 사회 악법들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들은 이에 대해 어떤 자세로 대응해야 할지 김지연 약사(영남신학대학교 특임교수)를 강사로 세미나(목양신문 1186호 3편)를 개최하는 등 한국교회에 침투해 오는 이단사이버와 전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데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탁구를 통한 선교사역 확장을 위해 뜨겁게 기도

예하성 스포츠선교회 탁구선교회 새해 첫 모임

예하성 스포츠선교회 산하 탁구선교회(회장 엄기설 목사)는 지난 2월 27일(화) 2024년 대전 은혜와찬양교회(담임 엄기설 목사)에서 새해 첫 모임을 갖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인 탁구를 통한 선교사역 확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운동하며 뜨거운 사랑의 교

제를 갖고 활력을 얻는 시간을 보냈다. 이날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탁구선교회 총무 기호선 목사(교산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정민 목사(은혜와찬양교회)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교단 전임 총무 최형택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였다. 최 목사는 엡 3:6-7 말씀을 본문으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전쟁과 기근 속에 마지막 때 깨어 있어 준비하고 나뉘 주라”고 전하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



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주제별 기도회는 ‘교단과 나라와



민족, 복음통일, 4월 총선을 위해’-이만규 목사(좋은 나무교회), ‘열방선교를 위해, 동성애, WCCWEA반대를 위해’-최창만 목사(은혜순복음교회)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하고 한마음 되어 기도했다. 사회자의 광고 후 최형택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오찬 후 탁구장으로 이동하여 연습경기와 친선 경기, 레슨하는 시간을 갖고 모임을 마치고서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함께해준 회원들을 격려하고 선물을 증정하고 2024년 첫 번째 모임을 은혜가운데 마쳤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총회임원 및 지방회임원)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 규칙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이라 한다(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 본 교단의 부흥발전과, 오직 성경적인 교단운영으로 국내의 선교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작하고 의롭고 진실한 일꾼을 선출함에 있다.
- 총회를 섬길 의롭고 신실한 일꾼을 선출할 때에 세속적인 수단, 방법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가운데 총 회원들이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시켜 교단 발전에 헌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원의 후보 자격

- 총회임원 자격기준은 헌법 제84조에 의하고 지방회의 임원은 헌법 제76조에 의한다.
- 임원 입후보 등록을 하려는 자는 헌법 제73조에 의거, 총회와 지방회의 상하비 연체가 없어야 한다.

제4조 총회임원 입후보 등록 및 운영사항

- 총회임원 입후보자의 등록 서류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마감일 전까지 총회본부에 제출하고, 총회본부의 접수담당자는 제출자의 입회하에 서류 목록을 확인한 후 봉인한다. 단, 제출한 서류 및 등록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총회 임원 입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는 등록마감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개봉하여 서류심사 후 입후보 등록 가·부를 입후보 당사자와 총회임원회에 통지한다.
- 총회임원 입후보자는 지방회임원회의 추천과 총회원 10명 이상의 서명 추천이 있어야 한다.
- 등록한 입후보자의 기본정보는 선관위가 총회 홈페이지, 총회신문, 우편으로만 총 회원에게 공지한다.
- 선관위시행규칙을 위반한 입후보자 및 총 회원은 즉시 선관위가 소환 조사할 수 있으며, 범법자로 판단이 되면 즉시 재판 위원회에 회부하고, 재판위원회는 신속 처리하여 선관위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선관위는 총회 임원회에 통지한다.
- 총회임원입후보자가 선관위 시행규칙 위반 시에는 선관위는 입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 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선관위는 해당 직무를 정지하고 재판위원회에서 유죄판결이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결원된 임원은 정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미등록 발생 시 교단헌법 제84조 3항 4호에 의거, 정책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서류는 선관위에 제출한다.
- 등록비는 총회장 입후보자는 1천만원, 부총회장 입후보자는 500만원, 총무 입후보자는 300만원, 그 외 임원 입후보자는 각 200만원씩을 총회 재정부에 입금하여야 한다.

*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제5조 총회임원 입후보자 선거운동의 규제사항

- 총 회원 상호 금품 제공 및 요구행위와 식사접대행위
-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 관공보임을 주선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총회 시 숙식, 오락 및 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인터넷, 유언물을 통한 선거운동
- 기타 선거운동.

7. 상기의 규제사항은 선관위 공고일부터 정기총회 후 10일 까지 적용한다.

제6조 총회임원 입후보자의 제출서류 : 각 1부씩

- 입후보 신청서(총회양식)
- 안수 증명서(목사는 총회에서, 장로는 지방회에서 발행)
- 상하비 완납증명서(총회, 지방회 발행)
- 재직증명서(목사는 총회, 장로는 소속교회)
- 명함판 사진(6개월 내 촬영) 3매
- 입후보 등록비 영수증 사본
- 지방회임원회 추천서
- 총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서
- 이력서 및 교단 내 약력 소개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입후보 조건서(A4용지 1장 분량)

제7조 부칙

시행규칙은 총회임원회를 통과한 즉시 발효한다.

- | | |
|--------------------|---------------------|
| 2011. 3. 7. 제정 | 2012. 3. 5. 일부 개정 |
| 2012. 4. 16. 일부 개정 | 2013. 3. 5. 교단명칭 변경 |
| 2015. 3. 3. 일부 개정 | |

- | | |
|----------------------------------|-----------------------------------|
| 1. 등록마감 : 2024. 3. 29(금) 17:00까지 | 4. 문 의 |
| 2. 등록장소 : 총회본부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재영 목사(010-7457-9768) |
| (접수담당자 : 사무국장 목사 윤기석) | 선거관리위원회 서 기 조길수 목사(010-6646-2917) |
| 3. 등록방법 :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목사 신 재 영 서 기 목사 조 길 수

“선열들을 생각하는 귀한 3.1절, 역사 담은 귀한 도시 아산시로 기억되길”

제105주년 3·1절 기념예배 및 기념식 “무릎 꿇고 금식하며 회개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와 충청지역교회연구소 공동주관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제105주년 3.1절 기념예배 및 기념식'이 아산시 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병완 목사)와 충청지역교회연구소 공동주관으로 아기연 정병환 대표, 이명수 국회의원의, 강훈식 국회의원, 김희영 시의장, 김영석, 이진영, 전만권 국회의원의 출마 후보자와 시민, 성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방 중앙침례교회(김병완 목사)에서 개최되었다.

1부 기념예배는 순복 목사의 사회로 김성권 목사의 대표기도, 이현상 장로의 성경봉독, 이교음 찬양사역자의 특송, 아산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정병환 목사의 설교, 박희중 장로의 헌금기도, 이승수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정병환 목사는 느 1:4-5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의 무릎이 나라를 세운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고

모든 일의 시작은 회개하며 금식하며 탄식 주저앉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 강조했다.

"노예미아가 무너진 조국을 위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과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재건과 나라를 회복하는데 역사하셨다"고 전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위해 기도하는 무릎이 나라를 세운다"라고 강조하며 주님의 명령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2부 기념식은 이재두 목사의 사회로 국민의례, 김병완 회장의 환영사, 정해곤 장로의 내빈소개, 내빈 축사, 축가, 광복회 아산지회 성금전달, 황기식 소장의 아산시 3.1운동사 강의, 삼일절 노래, 만세삼창, 김원진 목사의 폐회기도로 이어졌다.

환영사에서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는 "3.1절 기념예배에

참여해주 시민과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아산시가 정말 귀한 도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의미 있는 3.1절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이어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은 축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신앙을 위해 굳건히 지킨 선열들을 생각하는 귀한 3.1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명수 국회의원도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3.1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선열들을 향한 추모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선인 만큼, 그분들이 남기신 숭고한 정신을 잘 이어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의원은 "3.1운동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나라의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귀환 충기총 회장은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을 통해, 기도와 회개 그리고 성령의 역사,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이 땅의 희망이 솟아났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강조하고, "말씀중심, 교회중심, 하나님중심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산의 3.1 독립운동에 대해" 충청지역 교회사 연구소장인 황기식 목사의 강연이 이어졌다.

황 목사는 조선은 일찍이 개화에 눈이 멀었고 국운이 기울어 가고 있었지만 백성들을 깨우칠 나라의 지도자가 없었다고 전하고, 농업만 귀하게 여기고 상공업을 천하게 여겨 가난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다면

서, 조선의 가난은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이고, 정부의 역압적이고 폐쇄적인 정치체제와(독일의 오페르트 무역상) 부정부패한 관리와 양반들의 폭압적인 수탈과 무지해서 멸망했다고(할버트) 정리했다.

황기식 소장은 아산의 독립만세 시위는 3.1일 윤양보통공립학교에서 시작하여 4월까지 계속되었고, 50여 곳에서 산상 횡불시위로 일본 군경들이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이어졌다고 전하고, 비폭력 평화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미있는 운동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황 소장은 아산시민의 30% 이상이 독립운동에 참가했고, 선조가 정주로 몽진할 때는 아산 군민이 쌀 1,200석을 세곡선에 싣고 굶주린 조정과 임금 군사들에게 식량을 제공한, 그야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DNA를 가진 자랑스런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일절 노래와 만세삼창, 아산기독교포럼대표 김원진 목사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역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감당 다짐

전라지방회 월례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1월 30일(화) 오전 11시 전남 고흥시 소재 녹동순복음교회에서 2024년 1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유용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사회로 이태우 목사(선한빛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녹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백 목사는 요 4:46-54 말씀을 본문으로

경기남지방회 월례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효신 목사)는 지난 3월 12일(화) 열린순복음교회(김미연 목사)에서 3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미연 목사의 찬송 인도 후에, 총무 김진현 목사(비전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성영 목사(북원교회)의 기도, 김진현 목사의 성경봉독, 사모 중앙단과 고성록 목사의 은혜로운 특송 후에 지방회 서기 강진홍 목사(주사랑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강 목사는 시 136:1-25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을 맺으셨다"고 전하고, "하나님께서서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감사로 시작하셨고, 우리가 비천에 처하고,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함께 하셨음을 볼 수 있다. 오늘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목회자

로 불러주셔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기도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목양지에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되자"고 당부하고 축복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박흥열 목사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김진태 목사(선한빛교회)의 헌금기도, 전임지방회장 김남수 목사(밝은빛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지방회장 김효신 목사의 인도로 3월 월례회를 은혜롭게 마친 후, 열린순복음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중식과, 차와 다과로 교제를 나누는 뒤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 1)폐활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임팩으로 세계특허냄)
-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 *유방:중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사)예장총연, 105주년 3.1절 국가기도회 및 특강

이광용 목사, 3.1독립운동정신 상기 국가와 민족 위해 기도 당부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사)대한예수교
장로회총연합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는 지난 3월 1일(금) 오전 11시 마포구 월드컵로 예장총연 법인회관에서 '3.1절 독립운동 정신을 기억하자'라는 주제로 '105주년 3.1절 국가기도회'를 개최하고 105년 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외쳤던 선열들의 합성을 되새기고 민족복음화와 국가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3.1절 독립운동 정신을 상기하자'라는 주제 아래 열린 국가기도회는 (사)예장총연 김영복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과 (사)예장총연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한 후, 법인감사 김상돈 장로의 대표기도, 총무 김정대 목사의 성경봉독, 예장보수합동총회 임원일동과 예장합동전국연합총회 임원일동의 찬양, 고문 예영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예 목사는 시 127:1-2 말씀을 본문으로 '역사의식과 예장총연의 시대적 사명'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배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셨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면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진 특별기도시간은 '나라와 통일을 위해' 예장합동보수 전임총회장 이원호 목사, 대통령과 정계 지도자들을 위해' 예장합동총회 총회장 주영일 목사, '22대 국회의원 총선과 국가안보를 위해' 예장합동



총회 총회장 김다윗 목사, '저출산 해결과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 법인이사 김병선 목사, '한국교회 말씀 개혁과 성령충만을 위해' 상임회장 오선미 목사, '종교혼합주의 WCC 및 이단배방을 위해' 예장합동보수 총회장 권혁은 목사, '(사)예장총연 부흥과 성령충만을 위해' 회계 하석수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곧바로 이어진 2부 특강은 예장보수개혁정통총회 서기 전귀만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어 안병삼 박사가 '1919년 3.1절 운동 및 정신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라는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물결이 이 강산을 뒤덮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3.1 기독교정신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계승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고문 김원식 목사와 김기형 목사의 축사, 법

인 이사 김순종 목사의 헌금찬송, 예장합동경기 부총회장 김완수 목사의 헌금기도, 감사 최명철 목사의 3.1절 선언문 낭독,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의 인사 및 광고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105년 전 일어났던 3.1 운동은 온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고 전하고, "우리는 선진들의 뜨거운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후손들에게 복음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다 같이 3.1절 노래를 합창하고 김영복 목사의 인도로 만세삼창, 예장합동계승 총회장 송현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회원들은 3.1절 정신과 기독교사상으로 한반도의 복음평화와 통일을 이루며 국민화합, 정직, 청결, 절제, 봉사, 화합의 덕목들을 실천해 나가 우리 사회를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정부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환영한다!

저출생문제 극복과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 공공정책 수립해야



장현일 박사
한국공공정책개발
연구원장
신생명나무교회

필자는 지난 2월 14일(수) “총선 전이라도 기업의 출산장려금,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답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 함께출산을 0.7(2023)을 1.3-1.5(203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긴급제언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3월 5일 오늘 정부는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자녀가 출생 후에 2년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부영그룹이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하면서 세제 혜택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 할 예정이며, 기업은 자녀 한 명당 최대 2회에 걸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적용한다.

다만 이를 악용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자가 자녀, 형제, 자매 등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출산지원(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초저출생으로 국가 위기 속에서 출산 촉진의 동기부여로 이어져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심각한 생산성 인구감소로 기업 소멸 위기에 직면한 모든 기업이 초저출생 장려 정책을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할 때 가장 효과적인 투자이며, 가치가 큰 사회공헌으로서 가정 친화기업의 자부심을 갖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출산과 육아에 투자하는 비용은 단순한 추가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적 투자로 부모들이 가정 친화적인 기업의 변화와 출산과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세제 혜택뿐 아니라 자급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출산 지원을 동일 수준으로 대폭 늘려 초저출생문제 극복과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 공공정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 골든타임인 이때 정부와 국회는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이미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행복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가족과 생명존중의 가치관 및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한국교회는 결혼과 출산·양육을 통한 천국의 모험인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며 거룩한 구국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황의 동성커플 축복 허용 논쟁

교황이 사제가 동성커플을 축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위이다

최근 로마 가톨릭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교황청 신앙고리성이 2023년 12월 18일 발표한 교리 선언문은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한 축복을 집행해도 된다”고 밝히고 있다. 교황이 동성 커플 축복을 선포하는 근거는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근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창 1:27)에 따라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셋째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교회의 신학도 이런 시대의 변화에 대하여 포용적 자세를 가지도록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이번 선언문이 로마 가톨릭교회가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허용하는 것은 결혼은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는 교회의 기존 교리와 모순적이며 로마 가톨릭교회가 동성애를 사실상 수용하는 문을 연 셈이 되었다. 살펴내보는 이러한 교황의 동성 커플 축복 승인이 성경과 2천년 전통기독교 전통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하여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동성 커플 축복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성경적 신학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에서 예외가 아님으로 그들에게도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본래적 존엄성 곧 인간의 본래적 인간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 있음을 말해준다. 죄와 타락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적 모습은 사라졌으나 그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음으로 성경은 살인을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행위로 급하고 있지만, 동시에 성경은 인간에게 있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비참하게 된 인간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해 주는 것으로 말한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 주장의 근거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한 인권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본성의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해도 되는 방종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서는 안 된다. 동성애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동성에 행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근거로 동성애자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2. 동성 커플 축복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여기에는 동성애자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고 할 때 “세상”은 모든 타락한 인간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보여셨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죄에서 돌이켜 구원하 시고자 하는 사랑이지 사람들의 죄악을 묵인하고 관용하는 사랑이 아니다. 구약 창세기는 음란과 동성에 가증한 일을 저지른 소돔과 고모라 주민을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소돔 고모라의 폭도들이 롯의 손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창 19:5)라고

한 말은 성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신약 유다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유 7).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을 핑계로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교황의 동성애 커플 축복 허용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망령(妄謬)된 이해이다. 이런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구원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 사랑을 핑계로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 죄악된 행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하고 이런 신학의 발전 혹은 변화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 영원한 진리를 각 시대에 통용되는 방식을 따라 설명하는 형식적 표현 방식과 적용의 변화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바 진리의 본질을 시대에 따라 바꾸는 그런 “변질”이 아니었다. 전통 기독교교회와 신학은 초대교회 이후로 오늘날까지 항상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적 진리를 떠나거나 이를 변개하거나 성경이 말하지 아니한 새로운 것을 말한 일이 없다. 성경은 명백하게 동성애를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죄악임을 말하고 있으며 전통 기독교교회와 신학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시대를 불문하고 동성애가 죄임을 항상 말해왔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즉 반드시 죽일지니”(레 20:13). “음행하는

4.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성경의 결혼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성직자가 축복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성경이 인정하고 장려하는 행위에 한(限)한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명령하고 가르치는 행위를 성직자는 축복하여 더욱 힘쓰게 해야 한다. 성경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러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고 말씀하고 있다. 남녀가 합하여 한 몸된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복된 가정의 질서이다. 이러한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은 복주시며 지켜 주신다. 이와 같이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

성직자가 축복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성경이 인정하고 장려하는 행위에 한(限)한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명령하고 가르치는 행위를 성직자는 축복하여 더욱 힘쓰게 해야 한다.
남녀가 합하여 한 몸된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복된 가정의 질서이다.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 6:9-10).

오늘날 시대적 정신이나 문화 등이 아무리 동성애에 옹호적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신학 또한 동성애에 대한 변화한 시대 상황을 근거로 성경의 가르침을 변질시킬 수는 없다. 교회와 신학의 위치와 사명은 성경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성경이 교회와 신학의 시녀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황이 시대 상황의 변화를 근거로 동성애자들의 축복을 승인하는 것은 성경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교회와 신학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으로 생활방식 등의 변화 속에서 기독교 신학은 항상 새로운 질문과 도전에 직면해 왔고 기독교교회와 신학은 이에 응답해 왔으며 이는 신학의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므로 동성이 한 몸이 되어 부부가 되는 것은 성경의 교훈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는 동성 부부를 성직자가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직자로서는 할 수 없는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2장에서 남녀가 한 몸 되는 부부의 가족 질서를 세웠고 그 질서를 통해 인류를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러한 성경의 가족 질서에 어긋나는 동성부부를 성직자가 축복하는 일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

5. 로마가톨릭 교회도 지금까지 천년 이상 동성 커플 축복을 죄로 금지해 왔다.
로마가톨릭 교회도 현재의 프란치스코 2세 교황이 동성커플 축복을 인정하기 이전까지 천년이상 동성 커플 축복을 죄라고 금지해 왔었다. 프란치스코 2세 교황이 인정하기 이전까지 로마가톨릭 교회는 성경 말

씀에 따라 올바르게 동성커플이 죄라고 해설하였고 가르쳤으며 그러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성직자가 동성 커플에 대해 축복하는 것을 금지하여 왔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2세 교황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어찌까지 죄였던 것을 오늘날은 죄가 아니라고 규정하였다. 어찌나 오늘날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히 13:8)께서 자신이 세우신 결혼의 규정을 교황이 시대상황에 맞추어 바꾸는 것을 허용하실 수가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로마가톨릭의 교황은 세상의 풍조에 맞추어 변화하면서 세상을 기쁘게 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아내고 있다. 그리하여 세상의 환호 속에 로마가톨릭의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교황의 변신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어긋나는 행위요,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진리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라는 부부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변화하지 않는 한 보존되어야 함을 믿는다.

6. 한국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질서를 보존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힘써 성경적 성 교육을 실시하고 기도해야 하겠다.
한국사회에서 신마르쿠스주의자들은 인권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성경적 원리에 따라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합법화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장서고 여러 진보단체들이 처벌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시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여러 단체들이 폐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오히려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를 부추길 수 있는 동성부부를 성직자가 축복할 있다는 교황의 승인은 한국사회에서 동성에 합법화에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로서는 로마가톨릭의 교황의 성경에 벗어난 행위에 대해 심히 우려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나쁜 영향이 한국사회에 퍼져 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교회들이 이러한 교황의 행위가 성경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회적으로도 한국교회는 이러한 교황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알려야 하겠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가정의 성경적 질서를 지켜주시길 함께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하겠다.

2024년 3월 4일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이승만 전 대통령, 여성교육 강조·실천

국제자유주권총연대여성협의회, 탄신 149주년 축하문 발표

국제자유주권총연대여성협의회가 지난 3월 8일(금) 여성의 날과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9주년을 맞아 ‘여성의 날과 이승만 326 생신 기념일에 축하의 꽃을 보내자’라는 제목의 축하문을 발표했다.

단체는 “3월 8일은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이다. 이 날은 세계 모든 여성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압력을 달성한 여성들을 축하한다”며 “1911년부터 시작되어 거의 백년간 세계 여러 나라 백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참여하여 여성 참정권 등 여성의 동등한 권리획득을 성대히 기념한다”고 했다.

이어 “1875년 3월 26일에 태어난 이승만 대통령은 올해 탄신 149주년 되는 날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은, 건

국 이외도 여러 가지이나 여성 입장으로는 무엇보다 먼저, 여성인권신장을 위해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천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에서 고생하던 한인 여성들이 당하는 비참한 일들, 그리고 뉴욕에서 벌어지는 여성 대모를 보면서, 이승만은 일찍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한 분이였다”며 “1915년에 하와이에 최초의 여성학교 한인여학교(Korean Girls Seminary)를 세워 여성인권신장을 위한 교두보를 세운 세계적으로 가장 진보적 대통령이다. 그 증거로 건국초기의 예산 20%를 교육에 투자하였”고 했다.



2024 꿈엽서그리기대회’ 참가자 모집

오는 6월 14일까지, 전국 초등학생 참여 가능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오는 6월 14일까지 ‘2024 꿈엽서그리기대회’를 열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은 꿈엽서그리기대회는 가난과 분쟁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전 세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엽서에 그려 전달하는 국제대회다. 월드비전은 2021년 크리에이티브 도터를 홍보대사로 위촉,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꿈엽서그리기대회는 살아가는 데 필수 자원인 물을 국제적 이슈로 뽑고, ‘모두를 위한 물’이라는 주제로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전국 초등학생 누구나 학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학생은 본인이 생각하는 모두를 위한 물을 엽서에 그리면 된다.

참가자들은 월드비전 지역사회본부에서 제공하는 꿈엽서를 1인 1매씩 수령한 후 가족과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제출 기한 내 그림엽서를 완성해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엽서는 구매지에 한해 머그컵, 예코백, 키링 등 굿즈로 직접 제작도 가능하다.

수상작은 전문 심사위원들의 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13일 월드비전 홈페이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이 직접 수상자를 호명하는 시상 영상이 주어진다.

또한 원본 엽서와 굿즈의 수익금 일부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교육사업에 쓰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꿈엽서를 통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엽서 한 장 당 연필 한 자루가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방글라데시 선교를 다녀와서 ②

17일(토)

힌두동에 있는 매우 낙후된 곳에 진입했다. 기독교 복음으로 회복하고 있는 지역이다. 얼마나 어렵고 낙후된 지역인지 전국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주민들이 모여 사는 정부에서 허락한 힌두동에 모여 사는 판자촌이다. 이들에게도 가정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확장하고 있다.

18일(일) 저녁예배

방글라데시는 금요일은 쉬기 때문에 금요일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그 대신 주일에는 저녁예배를 드린다.

밀빨교회는 젊은 목회자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찬양사역과 기도사역을 제대로 정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받았다. 성도는 150여 명 정도였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방송과 줌으로 예배드릴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기도회가 끝나고 박영수 목사와 설교를 통해 큰 은혜를 나누었다. 이 교회는 박혜숙 선교사의 지대한 관심으로 몇 번째 금식기도한 결과 금식기도원 땅을 기증하는 분이 나왔다.

짓기만 하면 되는 상태이고 앞으로 기대 되는 방글라데시교회이고 밀빨교회 담임 목회자이다.

23일(토)

콜란 웃도교교회에 참석하고 그 다음 바둔AOG신학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학장을 만났다. 역시 시설도 좋았고 주변도 쾌적한 환경이었다.

신학생들도 공부하기에 적합한 아름다운 곳으로 미래 큰 기대를 가져본다. 잘 운영 된다면 앞으로 세계적으로 기대되는 신학교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3일 마지막 날이다

한인교회의 주일 낮 예배를 드리러 갔다. 한국적인 누앙스로 사업자 오신 분들, 단기 선교사들, 기존 선교사들 여러분들이 모여 열정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

모처럼 비빔밥으로 한국 음식의 맛있는 식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제 시간을 가졌다. 죽음도 불사하고 희생의 대가를 치른 선진들의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감사를 드렸다.

가족세트 총재 박영수 목사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다.

할렐루야! 아멘!

가족세트전도 총괄 본부장 이수 교수 031)592-1691, 010)3730-2573



“생명나눔으로 이웃사랑 약속하자”

전국 11개 교회, 성도 415명 장기기증 희망등록

(재)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 /이하 본부)가 새해와 사순절을 보내며 1월부터 두 달간 전국 11개 교회 성도 415명이 생명나눔예배를 통해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1월 21일, 서울시 송파구 가락제일교회(차용범 담임목사)는 1, 2부에 걸쳐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새해 첫 나눔의 불씨를 당겼다. 차용범 목사는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니, 새해를 맞이해 자신의 생명을 이웃에게 나누는 숭고한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자.”라고 권면했다.

이에 성도 98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뜻깊은 새해를 맞이했다.

이어서 2월 25일, 울산시 북구 염포교회(방수동 담임목사)는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방수동 목사는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찮은 돌맹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릴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면 크고 놀랍게 변화하게 된다.”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



을 본받아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순절을 보내자.”라고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권면했다. 이에 성도 60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이밖에도 선한교회(박진욱 담임목사), 양무리교회(오정석 담임목사), 한나로교회(조명훈 담임목사), 선향교회(이성철 담임목사), 마중물예람교회(김진철 담임목사), 생명나눔교회(이구영 담임목사), 신성교회(권오형 담임목사), 성현교회(백성근 담임목사), 강남중앙교회(심홍수 담임목사)가 생명나눔 예배를 드려 소외된 이웃에 나눔의 온기를 전했다.

본부 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새해의 뜻깊은 시작을 알린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올 한해 생명나눔 사역에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신 크나큰 십자가 사랑을 마땅히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누적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는 국민의 3.4% 수준인 178만3,283명(2023년 말 기준)이고, 지난해 실제 뇌사 장기기증인은 483명이었다. 이에 반해 장기이식 대기 환자는 5만1,857명으로, 매일 7.9명의 환자가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준수 목사 신간 ‘출애굽기를 캐스팅하다’ 2 출간

에세이 같은, 이야기 같은, 영화 같은, 책 화제

일생에 한 번은 꼭 정독해야 하는 감동의 출애굽기 대서사, 김준수 목사의 ‘출애굽기를 캐스팅하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김준수 목사가 7년 전에 출간한 ‘모세오경: 구약신학의 저수지’의 개정증보판 ‘미래세대를 위한 모세오경 시리즈’ 7권 가운데 두 번째 책이다.

출애굽 여정의 대서사를 통해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책의 출간과 함께 저자 김 목사는 “이 책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하고, 교회와 믿는 자들의 신앙을 거듭나게 하며, 우리 삶의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서가에 꽂아 놓고 가끔씩 꺼내 읽는다면 날마다 단비 같은 은혜가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그 쓰임새와 효능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한국 최고의 천일염은 바로 신안 천일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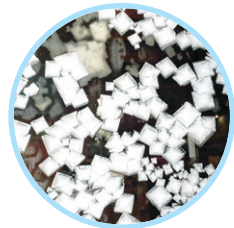
천일염은 고혈압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분명한 것은 고혈압에 안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천일염)을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소금은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탈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포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 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50,000원(택배비 포함)

■ 은행계좌 302-1777-9898-51 농협은행 김영국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수가 잘 빠진 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학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다량구매 특별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헌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실패하면 어때요?!



어느 금융회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내용에 느낌표 하나를 더 달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처음 걸음마를 할 때 우리는 수없이 넘어졌지요. 자전거를 배우던 날 무릎은 아팠어요? 수영 배우는 일은 아파 물먹는 일부터 시작이었지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무수한 실패를 딛고 서 있는 것입니다. 잊었지요? 일주일에 한번은 뽀빠 배우고자 부딪혀 보고자 생각합니다. 해보세요!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보세요. 자신이 가장 흥미로워 하던 주제를 꺼내보세요. 영어요? 누구는 뭐 처음부터 잘했나요. 실패하면 어때요? 지금 우리는 걷고 있고 자전거도 탈 줄 알잖아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두 번의 실패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사람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지요.

1991년으로 기억됩니다. 타임(TIME)지 커버스토리로 미국의 전대통령 닉슨의 회고담이 실렸습니다.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명 예스랍게도 중도에 대통령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는 크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모든 불명예는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언론은 자신을 더 없는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숙하고 때를 기다려서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1993년 미국의 전직 대통령 3인의 근황을 어느 신문에서 소개했습니다. 먼저 카터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지어 주기 운동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건은 일본에 와서 국제관련 연설을 하고 다녔는데 그것은 돈 때문에 팔려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닉슨을 소개하면서 그는 세계평화를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여 천안문 사태 해결을 위해서 외교하는 내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닉슨이 “하루가 얼마나 화려한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저녁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 것은 매우 옳다고 여겨집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실패가 치명적일 수 없다. 당신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Defeat is never fatal unless you give up)이라는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얼마 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의 언론들은 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실패하면 어때요!

한 두 번의 실패가 인생을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사람을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별과 같은 인물들은 그가 누구든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나와” (잠 24:16)

초대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내 입술의 찬양

예전에는
봄 왔다고 좋아만 했지요.
연두~빛 머금고 춤추는 잎새들
그것 보고 설레이며 행복 했습니다.

이제는
봄이 오면 찬양합니다.
만물 속에 감추인 하나님 사랑
내 입술의 노래되어 찬양합니다.

예전에는
내 눈에 보이는 꽃만 보고 좋아 했지요.
꽃 몽우리 품고 피어나는 수줍던 꽃님들
그것보고 꿈만 꾸던 철부지였죠.

이제는
봄이 오면 감사드립니다.
그 속에 숨겨놓은 생명의 신비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을 만났으니까요...



전원성전에서 야외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돌려보니 연두빛 푸르름이다.
나의 영혼은 어느새 주를 찬양하기 시작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응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4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반영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3. 전형안내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홈페이지 : www.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4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영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